

# 논증과 권위

하병학 (가톨릭대 교양교육원)

**주제분류** 논리학, 논증론, 수사학

**주요어** 권위, 논증, 논리학, 수사학

**요약문**

권위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권위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물이나, 지식, 관습 등에 대해서도 권위라는 술어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른 한편 권력, 폭력과도 권위를 구별짓는다. 즉 권위의 담지자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함께 권위를 ‘자율적 따름’으로 특징지을 때 권위에 대해 좀더 명료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당한 논증법칙에 대한 학문인 논리학에는 권위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류론에서 ‘권위’가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인 논리학을 넘어 통념을 다루는 변증론과 설득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수사학에서 권위는 주요한 주제가 된다. 특히 설득의 요소 중 하나인 에토스와 권위는 깊은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을 명예로운 삶, 좋은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대 들어와 등장한 논증론, 신수사학에서는 논증이 아니라 논증활동을 주목하기에 권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논증활동은 기존의 믿음에 권위를 벗겨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정당한 논증을 추구하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여한다. 문제는 누가 보편청중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논증활동은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라며 함께 제거하고, 어떤 가치를 바람직한 권위로 함께 창조하는 실천과정인 것이다.

## 1. 탈권위시대에 권위에 대한 시각들

탈권위시대에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권위를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혹은 사회적 인정과는 무관하게 강요된 일방적인 명령체계’라고<sup>1)</sup> 규정하고 권위를 비판과 극복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어떤 정당한 것과는 달리 권위는 정당하지 않는 데도 우리를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권위를 ‘인간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sup>2)</sup> 보고 탈권위라는 것도 실상은 구권위를 대체한 신권위의 형성일 뿐 인간사회는 권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법, 제도, 도덕, 관습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까지도 권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가장 포괄적인 시각이어서 권위에 대한 여러 입장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다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 인간사회는 합리적인 것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 나아가 한 시대에 정당한 권위가 다른 시대엔 부당한 권위로 판단되는 것을 보면 ‘정당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시대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 등이다.

마지막 하나는 잘못된 권위를 극복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권위’의 회복”이<sup>3)</sup>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권위가 인간사회에 유효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권위가 부당한 권위와 분명히 구별될 때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한다는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권위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여러 시각이 발생하는 것에는 동일한 권위에 대한 상이한 이해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그것은 즉 권위에 대한 상이한 정의에 따라 권위의 외연이 달라 논의되고 있는 권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권위라고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탓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려면 권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권위를 벗어나려는 것조차 또 다른 권위다’라는 말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 논문은 권위의 문제를 논증과 결부지어 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권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당성과 무관할 수 없는데, 논증은 바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정당한 설득의 과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잘못된 권위를 극복하고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권위에 대한 물음은 특히 논증과 깊은 관계에 있다. 또한 권위를 논증과 결부지은 논의는 권위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 다양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혼미스러운 논의들을 명료하게 해 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권위와 논증에 대해 논하되 좁은 의미의 논증(argument)을 넘어 넓은 의미의 논증(논증행위 argumentation)에서는 권위에 대해 어떠한 자리매김이 가능한지 다룰 것이다.

---

1)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권위」, 『탈권위주의와 ‘진정한 권위’의 조건들』, 중앙대학교 철학과 창설 5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4.10, 3쪽.

2) 위의 논문, 4쪽.

3) 위의 논문, 3쪽.

## 2. 넓은 의미의 권위, 좁은 의미의 권위

서양어에서 살펴보면, ‘권위’라는 말은 라틴어 ‘auctoritas’를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augere’, 즉 ‘증가하다’, ‘촉진시키다’라는 뜻의 낱말에서 파생되었다. 그 후 이 낱말은 ‘촉진’, ‘보증’, ‘보고’, ‘발기’, ‘창시’, ‘모범’ 등의 뜻도 갖게 되었다. 일단 대략적으로 정의해 보면, 권위란 ‘갑의 요구에 다른 사람이 “예”라고 답하는 갑의 특성의 총체’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한다, 권위를 따른다’고 함은 그것을 단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의 의무가 부가됨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 따름이라는 행위가 항상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그것을 따라야 하겠다’는 심리적 부담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때 그 무엇은 항상 권위를 지닌 것인가? 그것이 권위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따르는 것을 권위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른다면 그 연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권위라고 불리는 여러 상이한 것들을 구분해 보자.

### <상이한 의미의 권위들>

- a) 개인의 능력, 인격, 지위, 권한에 기인하는 권위
  - a-1) 개인의 능력에 기인하는 권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학생이 수능시험을 준비할 때 학교 교사의 말보다 학원 족집게 강사의 말을 따른다.
  - a-2) 개인의 인격에 기인하는 권위: 많은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을 따른다.
  - a-3) 공동체에서의 지위에 기인하는 권위: 선배의 말을 후배가 따르고 부모의 말을 공경한다.
  - a-4) 공동체에서 부여된 권한에 기인하는 권위: 군대 지휘관의 명령과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따른다.
- b) 제도와 관습에 기인하는 권위: 법을 지키고 장례식에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않는다.
- c) 사실과 진리에 기인하는 권위: 논문을 쓸 때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선인장보다는 장미에는 물을 자주 준다.

### 1) 정당성과 권위

위에서 말한 세 번째 시각에서 말한 “정당한 권위”란 권위의 세 가지 부류의 것들이 정당한 것임을 뜻한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여야 하며, 제도가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 정당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서 허용하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존립이 법의 최고의 가치라고 보고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실정법은 항상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한 그 법을 따라야 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권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다.

## 2) 진리와 권위

어떤 살인사건의 혐의자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을 때 그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형사가 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권위가 발생하였는가? 형사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알리바이인데 “알리바이가 성립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혐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리를 권위라 할 수 있는가? 이것마저 권위라 한다면 권위의 개념은 너무 넓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의미의 권위를 파악하기 위해 c)의 의미의 권위는 배제하고자 한다.

## 3) 권위의 담지자

권위를 논할 때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것은 권위의 담지자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A에는 권위가 있다’, ‘A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의 담지자가 인간 혹은 인간이 가진 능력 등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도 권위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가? 권위의 담지자가 인간 혹은 인간의 능력 등이라면 a)만이 진정한 의미의 권위이고 b)와 c)에서의 권위는 사이비일 뿐이다. 국어사전에서도 대부분 권위를 “남을 통제하며 복종시키는 권력과 위세”<sup>4)</sup> 등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 권위의 담지자는 인간 또는 인간이 가진 능력 등이다. 위에서 말한 “알리바이가 성립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혐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참된 명제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사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b)와 c)에서 말하는 권위를 a)와 혼동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논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일한 용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동일한 논의대상으로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며 애매모호한 논의만 양산시킨다는 게 논자의 생각이다.

## 4) 권위와 권력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다음의 경우를 보자.

- x) 그(말, 행위 등)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른다.
- y) 그(말, 행위 등)가 옳든 그르든 따른다.
- z) 그(말, 행위 등)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따른다.

왜 z)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가? 여기에는 이익, 권력, 폭력 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우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하지만 이들은 권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은 명령하고 권위는 요청한다. 즉 권력은 타율적이고 권위는 자율적이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폭력배에게 돈을 줄 때 그가 권위가 있어서 준다고 한다면 권위와 폭력을 혼동하게 된다. 우리가 판사의 법적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판결을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도 ‘권위에 따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권위를 불분명하게 한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권위에 자율적 따름’에 있어서 ‘권위’이며, 따라서 a-4) 역시 우리가 주목할 ‘권

4) 참조: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 민중서관 1978.

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제 남은 것은 a-1), a-2), 1-3)뿐이다.

5) 권위는 정당성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따름을 촉진하는 것인가?

4)에서 x)와 y)는 어떠한 경우인가? 100원짜리 과자 10 봉지를 사려는 어린이에게 상인이 '100 x 10 = 1,000, 그러므로 1,000원을 내라'고 말하고 이를 따르는 아이의 경우 권위가 발생하는가? 여기에서는 상인의 권위는 없고 단지 상인이 한 말의 내용(명제)이 옳기 때문에 상인의 말을 아이가 따르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c)의 의미의 권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의미의 권위가 아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가 셈을 잘 하지 못하지만 상인이 물건을 파는 어른이고 거짓말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따랐다면 여기에는 권위가 발견된다.

다른 예를 보자. a-1)의 권위에서, 죽집게 강사가 P의 방법으로 가르쳐 나의 성적이 올랐을 때 이번에 다시 그가 나에게 P 또는 Q의 방법(예: 보조교재 구입)을 추천한다고 하자. Q의 방법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그의 추천을 따른다. 여기에서 권위가 작용한다. 즉 죽집게 강사가 추천한 P의 방법이 합당하다는 것을 체험한 뒤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그 권위가 새로운 방법인 Q도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촉진한 것이다. P의 방법을 따른다면 여기에서는 a)의 권위는 작동하지 않고 c)의 의미의 권위가 작용한다.

우리가 권위를 '따름을 촉진한다'고 애매하게 말하지만 여기에서도 권위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촉진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성과는 무관한 채 따름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전자는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른다'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후자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관한 자율적 따름이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y)는 후자의 의미다. y)와 같은 의미의 권위는 이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권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정당성과는 무관한 자율적 따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요, 따라서 권위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불합리한 소용돌이도 빠지게 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권위는 정당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촉진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권위이다. 이는 위의 y)에서 x)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권위이다. 즉 이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권위는 '그(말, 행위 등)가 옳다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무엇(권위!) 때문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에 따른다'와 같이 정당성 인정을 촉진하고 따라서 따름을 촉진하는 그러한 권위다. 따라서 y)에서 x)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권위를 살펴보는 것이 "정당한 권위의 회복"에 대한 발판이 된다는 게 논자의 생각이다.

### 3. 논리학에서 권위의 문제

#### 1) 논리학 일반에서의 권위

논증이라는 말은 상이한 뜻을 지니고 있다. 논증은 일반적으로 서양어의 argument, argumentation의 번역어이지만 이 또한 학자들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논리학에서는 논증을 일반적으로 "전제와 결론, 또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구실을 하는 두 개 이상의 문장 또는 명제로 결합되어 있는 묶음"을<sup>5)</sup> 말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늘 등장하는 '추론'은 "그러한 논증이 이루어지는 사유과정"을<sup>6)</sup> 말한다. 논증과 추론, 구체적으로 말

하면 ‘타당한 논증과 추론 법칙, 특히 그 형식적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형식논리학이다. 여기에서 타당한 논증이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인 논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논리학에 있어서 ‘권위’는 그 어디에도 파고들어갈 틈이 없다. 권위는 오히려 잘못된 논증, 즉 오류와 관련지어 논의될 뿐이다.

오류란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그렇지 않은 논증이다.”<sup>7)</sup> 논리학에서는 전제와 결론의 타당한 형식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한 논증을 ‘권위에 호소의 오류(argumentatio ex auctoritate, argumentum ad verecundiam)’라 부른다.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 어떤 권위에 의거한 논증은 타당한 (연역)논증도 적절한 (귀납)논증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가 p를 주장한다. 고로 p다.” p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형식적, 내용적 근거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기에 오류라는 것이다.

형식논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완성시킨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먼저 그의 스승인 플라톤에 있어서 권위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2) 플라톤의 대화록에 있어서의 권위의 문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가 올바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끼어든 폴레마르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것 단연코 그렇습니다. 적어도 시모니테스의 주장에 어느 점에서 동조한다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시모니테스가 올바름에 관해 무슨 말을 했기에,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올바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제가 보기엔 훌륭한 말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한다. “하기야 시모니테스의 말이니 안 믿기도 쉽지 않죠. 지혜로우며 신과도 같은 분이기도 하니까 말씀이요. 하지만 도대체 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를, 폴레마르코스, 당신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모르겠소...”<sup>8)</sup>

그리고 시모니테스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힌 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이에 대해 폴레마르코스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올바르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서, 이 말로써 올바른 사람한테서 적들로서는 해를 입되 친구들로서는 이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걸 뜻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한 이가 아닐 것이요.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누구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명백해졌으니 말씀이요.”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런 말을 시모니테스라든가, 바이스나 피타코스라든가, 또는 그 밖의 다른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들 중의 누군가가 했다고 한다면, 나도 당신도 함께 그 사람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내가 말했네.<sup>9)</sup>

5) 허병학, 「논리」, 『우리말 철학사전 4』,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지식산업사 2005, 115쪽.

6) 위와 동일함.

7) C. L. Hamblin, *Fallacies*, London Methuen 1970, 12쪽.

8) 플라톤, 『국가론』, 박종홍 역주, 서광사 1997, 331d-e.

위의 내용은 비록 유명하고 권위 있는 시모니데스의 말일지라도 그의 말이 옳으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단지 그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를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0)</sup> 당시 사람들도 권위에 의존하여 판단하고는 그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있어서 권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논리학 저서 『분석론 전서』에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논증은 논인 것들에서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이 그것들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논의방식(logos)이다.”<sup>11)</sup> 전제와 결론의 필연적 관계라는 이러한 의미의 논증에 관한 『분석론 전서』이기에 여기에서는 ‘권위’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흔히 ‘궤변론’이라고도 불리는 『소피스트적 논박』에서<sup>12)</sup> ‘권위’가 논의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즉 그 하나는 ‘언어에 기인하는 오류 (fallacia in dictione)’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에 기인하지 않는 오류 (fallacia extra dictionem)’이다. ‘애매성의 오류’ 등이 속하는 언어에 기인하는 오류와 ‘권위’는 무관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기인하지 않는 오류’에서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증을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persuadere)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오직 필증적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인 증명(demonstratio)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언어에 기인하지 않는 오류 중 ‘결론에 의한 오류’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결론에 의한 오류’는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면 ‘후건공정의 오류’ 등이 속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 “ $(P \rightarrow Q) \wedge Q \rightarrow P$ ”. 이를 권위와 연결시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의 말이 옳기에 그가 권위를 가진다. 그가 권위를 가진다. 고로 그의 말은 옳다.”

이러한 해석가능성 때문인지 코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기인하지 않는 오류’를 “적합성의 오류”라고<sup>13)</sup> 명명하고, 여기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포함시킨다. 하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코피의 정의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권위’를 거론하는 모든 논증은 권위에의 호소에 해당되는 오류인 것이다.”<sup>14)</sup>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변비약을

9) 위의 책, 335e. 참조, 역자주: “시모니데스는 서정 시인이고, 비아스, 피타코스는 둘 다 반(半) 전설적인 인물로 헬라스인들이 꼽은 일곱 현인들 중에 포함된다.”

10) 예를 들면 플라톤의 『에우티프론』에서 에우티프론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경건하나, 신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경건을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건의 정의의 부당성을 소크라테스는 지적한다. 플라톤, 『에우티프론』, 박종현 역주, 5a 계속.

11) Aristoteles, 『분석론 전서』, 상권 제1장 24b18-20.

12)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적 논박』, 김재홍 옮김, 한길사, 1999.

13) I. 코피, 『논리학 입문』, 민찬홍 옮김, 이론과 실천, 1992, 110쪽. 여기에서는 논거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에 근거한 논증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심리적 요인’으로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1997, 406쪽), 일부 학자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fallacy of appealing to the emotion)’으로 분류한다 (여훈근, 『현대논리학』, 대영사, 1982, 90쪽).

선전하면서 예쁜 텔런트가 나오는 광고는 분명 권위에 호소의 오류에 해당한다. 문제는 변비약을 선전하면서 약사가 나오는 광고는 오류인가 혹은 정당한 논증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코피는 오류가 아니라는 듯 말하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어느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코피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면지 못할 것이다.

#### 4.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과 수사학에서 권위의 문제

##### 1) 설득과 통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권위의 문제는 논리학보다는 수사학과 변증론에서 더 많이 논의될 수 있다. 그는 필연적 진리에 대한 증명을 다루는 논리학과 통념(endoxa)을 다루는 변증론을 모든 학문의 예비학, 즉 도구(Organon)로, 설득의 학문인 수사학을 제작지(制作知)의 학문에 포함된 하나의 학문으로 규정하였다.<sup>16)</sup>

그의 변증론에서 말하는 통념이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혹은 현인[학자]들에게, 요컨대 그들 모두에게 혹은 그 대다수에게, 혹은 가장 유명하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고 받아들여질[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다.<sup>17)</sup> 즉 논리학과는 달리 변증론에서 다루는 추론은 전제가 참,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가 원초적인 것도 통념적인 것도 아니면 오류라고 말하며 변증론과 소피스트적 논박을 분명히 구분한다.<sup>18)</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증론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좁은 의미의 논증, 즉 추론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논리학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통념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위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한 “대다수 사람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대중에 호소의 오류’와 연관된다면, “유명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은 ‘권위에 호소의 오류’와 연관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통념의 문제는 논증과 관련해서 더욱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우리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수사학을 특징짓는 설득은 말의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정당성과 관련된 ‘가르침(docere)’이고, 다른 하나는 청자를 ‘움직이게 함(movere)’이다. 가르침이란 어떤 말의 내용이 진리임을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고, 움직이게 한다 함은 말을 통해 청자의 마음의 상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추동하여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끔 한다는 것을 뜻한다.<sup>19)</sup> 논리학이나 변증론은 전자만을 주목할 뿐 후자를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위’의 문제와 관련지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설득의 기술(Ueberzeugungsmittel)에는 세 가지가 있

14) 위의 책, 121쪽.

15) 위와 같은 곳.

16)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025b25.

17)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I 1. 100b 계속.

18) 『변증론』, 101a.

19) 참조: 이태수, 「언어, 수사술 그리고 인문학」, 『수사학』, 제2집, 한국수사학회, 2005, 102쪽.

다. “그것은 즉 화자의 인품(Charakter, ethos)에 기인하거나 또는 청자를 어떤 분위기로 데려가는 것에 기인하거나(diathesis) 또는 증명이나 그럴 듯한 증명을 통한 말 자체(logos)에 기인한다.”<sup>20)</sup> ‘청자를 어떤 분위기에 데려가는 것’은 바로 파토스(pathos)를 말하는데<sup>21)</sup> 이는 에토스와 함께 위에서 말한 ‘움직이게 함’과 직결되어 있다.<sup>22)</sup>

## 2) 에토스와 권위

‘권위’와 관련지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화자의 특성이라 불리는 에토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이 화자를 믿음직스럽게 하도록 말이 유지되면 [화자의] 인격에 의해 설득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용이 있는 사람을 더 기꺼이 그리고 더 빨리 – 일반적으로 – 신뢰한다. 어떤 분명함도 없고 의심이 팽배해 있는 곳에서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이는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화자의 성격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몇몇 학자들이 그들의 이론에서 화자의 도덕적인 삶의 여정이 신빙성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자의 인격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참이 아니다.<sup>23)</sup>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설득에 있어 기능하는 화자의 인격을 정리해 보자. 첫째 인격을 갖춘 말은 청자가 화자를 더 신뢰하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더 기꺼이 그리고 더 빨리”라는 비교적인 측면을 강조했을 뿐 결코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타당한 논증을 제시할 때도 에토스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설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토스가 설득의 핵심원인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화자의 인격도 청자가 막연하게 갖는 선입견을, 예를 들면 좋은 옷과 넥타이를 입은 복장을 보고 판단된 화자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드러나는 인격을 뜻한다. 인격도 진정한 인격이어야지 거짓 인격, 예를 들면 죽집게 강사도 아니면서 죽집게 강사인 것처럼 인격을 가장하는 것은 부정하고 있다. 셋째 삶의 여정과 인격은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인격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설득력에서 로고스, 파토스와 함께 에토스가 상승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논증이 정당성을 갖지 않은 채 화자의 인격에만 의존한 설득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에는 한갓 도덕적인 것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의 정서, 습관, 삶의 태도, 나이, 열정, 부의 정도, 출신, 사회적 지위 등도 속한다.<sup>24)</sup> 권위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의 논증이 로고스적으로 정당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에토스에 의해서도 따른다면 – 물

20) 아리스토텔레스, *Rhetorik*, uebst. von F. G. Sieveke, Muenchen, 5. Auflage, I 2, 1356a.

21) 위와 같은 곳.

22) 참조: 위의 책 번역자 F. v. Sieveke의 주석 9), 232쪽.

23) 위의 책, I 2, 1356a.

24) 위의 책, II 12. 1. 1388b. 참조: K. Dockhorn, *Macht und Wirkung der Rhetorik. Vier Aufsätze zur Ideengeschichte der Vormoderne*, Band Homburg v. d. H. 1968, 15.

론 그 사람이 나의 감정에 와 닿는 파토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권위와 연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퀴틸리아누스는 “가장 명예스럽고, 참되어 보이는 화자의 살아온 여정과 말하는 방식에 화자의 권위가 관계된다.”고 말한다.<sup>25)</sup> 한 마디로 화자가 명예로운 지위, 삶, 등 좋은 덕성(vir bonus)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때 그는 권위를 가지며 이는 그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2장에서 권위란 “정당성 인정을 촉진하고 따라서 따름을 촉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잘 드러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권위가 파토스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에토스와 파토스의 분류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면 퀴틸리아누스는 흥분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파토스로, 부드럽고, 선한 의지 등은 에토스로 구분하지만, 어떤 이는 명예로운 것은 에토스로, 미적인 것은 파토스로 구분하기도 한다.<sup>26)</sup> 논자는 모든 화자의 에토스적인 것들은 결과적으로 청자의 파토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3장의 3)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심리적 오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로 분류되는 것도 이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명예로운 삶, 좋은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에 따라 다시 무엇이 정당한 권위라고 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능하기에 항상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 5. 논증론, 신수사학에서 권위의 문제

현대 들어와 등장한 논증론, 즉 페렐망의 용어를 빌리자면 신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변증론, 수사학을 통합하는 분야다.<sup>27)</sup> 여기에서는 명증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필연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을 벗어나, 청자를 고려하여 그가 통념적인 전제에서 개연적인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설득을 주목한다. 즉 논증론은 정적인 명제들로 이루어진 논증(argument)이 아니라 한 사회 속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펼치는 동적인 논증활동(argumentation)을 주목한다. 그러기 때문에 논증론이 가장 주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자다.<sup>28)</sup> 청자를 중심으로 논증과 권위의 문제를 다루어 보자.

### 1) 논증과 갈등<sup>29)</sup>

우리는 논증을 왜 하는가? 논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 1 = 2”, “일본은 섬이다”, “태양은 하나다”, “모든 아버지는 남자다” 등에 대해 논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논증한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왜 갑자기

25) G. Ueding[Hg.], ‘Auctoritas’,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Rhetorik*, Band 1. 1181.

26) 아리스토텔레스, *Rhetorik*, 번역자 주석 10.

27) 참조: 하명학, 「‘보편 교양학’으로서의 수사학 재정립. 고전수사학과 현대 신수사학의 조명을 통하여」, 『철학 탐구』 제1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4.

28) Chaim Perelman, *Das Reich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uebertragen von Ernst Wittig, Muenchen 1980, 14.

29) 참조: J.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제4장 논증과 갈등.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호주제”에 대해 “호주제 철폐”라는 주장을 펼치는 논증을 하게 되었는가?

논증이 가능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어떤 명제에 대해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요, 논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그 믿음의 정당성을 당연하게 생각한 채 그 정당성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논증을 규정함은 의문의 제기가 유발한 갈등과 논증이 발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논증과 갈등은 권위로 감싸인 우리의 믿음에서 권위를 벗겨냄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는 것이다. 갈등은 한갓 주장간의 대립이 아니라 주장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 등의 존재방식들간의 대립이다. 따라서 논증을 한다는 것은 권위에 싸인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다.

## 2) 권위와 정당성

연역적 추론의 모델은 기하학과 논리학이다. 여기에서는 몇몇 공리와 일의적으로 규정된 정의로부터 연역적인 추론에 의해 도출되는 정리들의 필연적 관계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역적 방식은 일상언어로 구성된 사회적 담론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연역적 추론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나 이 문제를 드러내는 표현은 결코 일의적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어머니는 여성이다.’와 같은 흔히 분석적 명제라는 것도 사실 ‘어머니’, ‘여성’에 대한 새롭게 변경될 수 있는 정의에 따라, 예를 들면 동성애 결혼이 가능한 경우 어느 남성이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한다면, 분석적 명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권위란 과연 어떠한 정의를, 예를 들면 ‘어머니란 아이를 낳은 사람을 의미한다’, 또는 ‘어머니란 수유 등을 통해 아이를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에 있어서도 어떤 학문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권위가 작용한다.

이와 같은 권위의 역할은 경험적 학문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경험적 학문에서는 그 증거와 방법이 인간의 권위부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증거와 경험적 방법에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학문적 활동의 정당성은 유동적이다. 사회과학에서 통계 조사방법에 있어 어느 체계를 활용했느냐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맹점의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푸코는 항상 우리들에게 과학이나 사회 안에서 절대적 객관성으로 위장된 권력의 음모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sup>30)</sup>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대부분의 것은 권위로 보호되어 있는데 논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권위라는 장막을 걷어내는 행위다. 논증은 이제까지 진리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통념에 대한 의심이며, 통념을 진리로서 유지시켜온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즉 권위가 진정한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논증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일어난다. 하지만 권위에 대한 도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온 권위에 대한 도전 역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학술적인 통념에 대한 어떤 어린이, 학문 밖의 사람의 도전은 도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정당하지 못한 권위를 벗겨내

30) 존 벨스, 앨런 메길, 도날드 맥클로스키, 『탐구의 수사학』, 『인문과학의 수사학』, 박우수양태종 외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년, 13쪽.

는 일을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논증자의 권위다. 여기에서 정당성을 대표하는 것은 진리이겠지만, 사실 진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새로이 믿기 시작한 지식, 통념일지도 모른다.

### 3) 청중과 권위<sup>31)</sup>

우리는 논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증을 무슨 목적으로 왜 펼치며, 대학 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한 대자보를 왜 내놓은가? 우리가 무엇을 논증하는 것은 그것이 옳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논증을 펼치는 것은 그것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논증을 구성할 때도 그 논증의 자체적 정당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 논증의 화해적 목적을 생각하면 청중은 언제나 고려되어 있기 마련이다.

논증행위는 청중에게 이제까지의 진리가 실제로는 권위에 싸인 허구라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의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청중은 대립되어 있는 논증들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청중은 누구를 말하는가? 청중은 보편 청중과 특수 청중으로 구별될 수 있다. 보편 청중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 논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무엇이 보편 청중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수한 청중은 구체적이고 논증을 펼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논증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집을 사는 데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A라는 방법을 제안(지시?)했는데 아내가 반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남편은 아내의 반대를 자신의 제안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과 함께 가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그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가장의 권위를 너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란 남편이 생각하는 보편청중이요, 아내에게는 한갓 부당한 특수 청중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한 권위의 회복’을 꿈꾼다는 것은 논증에 있어 우리가 ‘진정한 보편청중’을 꿈꾼다는 것이다. 독재자는 논증하지 않는다. 독재자의 권위는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논증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증으로부터 자신이 영향을 받기를 허용하는 청중에게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 6.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

이 논문의 말머리에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을 언급하였다. 모든 권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은 권위의 최소주의를 표방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권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복권, 유지되어야 할 권위와 제거되어야 할 권위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성애에 대한 회의주의적 입장을 내포하기 쉽다. 이제 우리는 어떤 권위를 회복시켜야 할지 답변을 해야 한다.

권위는 우리들의 믿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믿음 모두가 정당한 앞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처음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의 처방에 따라 몇몇 알약을 먹지만 실통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처음 의사를 찾

31) 참조: 크로스화이트, 위의 책, 제5장 청중과 논증.

아가 그의 처방을 들을 때까지는 그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지만 더 이상 그를 찾지 않는 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다. 물론 그 의사의 처방이 잘 통한다면 그의 처방에 대한 믿음과 그의 권위는 강화되고 된다.

권위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좋은 것을 촉진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촉진하기도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무엇이 권위인가에 대해서는 시대, 문화마다 다르다. 예전에는 어떤 이가 어떤 조상의 자손인가, 나이가 얼마인가 등에 따라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이가 어떤 학력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어떤 직장을 나가며, 서울시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물질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정당한 권위를 복권하고자 하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퀴틸리아누스는 “가장 명예스럽고, 참되어 보이는 화자의 살아온 여정과 말하는 방식에 화자의 권위가 관계된다.”고<sup>32)</sup> 말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위의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명예, 참된 삶의 방식 등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크로스화이트는 논증행위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증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이미 확립된 의미에서 우리가 호소하는 공통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추론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합의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살기 위하여 공통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sup>33)</sup>

결국 논증행위는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라며 함께 제거하고, 어떤 가치를 바람직한 권위라며 함께 창조하는 실천과정인 것이다.

---

32) G. Ueding[Hg.], ‘Auctoritas’,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Rhetorik*, Band 1. 1181.

33) 크로스화이트, 위의 책, 235쪽.

## 참고문헌

-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현실사, 1997.
- 존 벨슨, 앨런 메길, 도날드 맥클로스키, 「탐구의 수사학」, 『인문과학의 수사학』, 박우수·양태중 외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김재홍 옮김, 까치, 1998.
-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적 논박』, 김재홍 옮김, 한길사, 1999.
- 여훈근, 『현대논리학』, 대영사, 1982.
- 이태수, 「언어, 수사술 그리고 인문학」, 『수사학』 제2집, 한국수사학회, 2005.
-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권위」, 『탈권위주의와 ‘진정한 권위’의 조건들』, 중앙대학교 철학과 창설 5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4. 10.
- I. 코피, 『논리학 입문』, 민찬홍 옮김, 이론과 실천, 1992.
- J.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플라톤, 『국가론』, 박종홍 역주, 서광사, 1997.
- 플라톤, 『에우티프론』, 『플라톤의 네 대화 편』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03.
- 하병학, 「논리」, 『우리말 철학사전 4』,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지식산업사 2005.
- 하병학, 「‘보편 교양학’으로서의 수사학 재정립, 고전수사학과 현대 신수사학의 조명을 통하여」, 『철학탐구』 제16집, 중앙철학연구소, 2004.
-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 민중서관 1978.
- Aristoteles, *Lehre vom Schluss oder Erste Analytik (Organon III)*, Uebersetzt v. Eugen Rolfes, Hamburg 1975.
- Aristoteles, *Rhetorik*, Uebersetzt von F. G. Sieveke, Muenchen 1995.
- C. L. Hamblin, *Fallacies*, London Methuen 1970.
- Chaim Perelman, *Das Reich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uebertragen von Ernst Wittig, Muenchen 1980.
- G. Ueding[Hg.], ‘Auctoritas’,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Rhetorik*, Band 1. Tuebingen 1992.

## Argumentation and Authority

Byung-Hak, Ha

Der Hauptgrund, warum es zur Zeit verschiedene Einstellungen ueber die Authoritaet gibt, liegt darin, dass unter ihr verschiedenes verstanden wird. Nach meiner Meinung ist der Begriffstraeger von Authoritaet nicht etwa Wissen, Tatsache, Tradition usw., sondern nur der Mensch, der irgendwelche Faehigkeit besitzend scheint. Und wenn die Authoritaet ein 'freiwilliges Folgen' bedeutet, muss sie von Gewalt bzw. Macht unterschieden werden.

Die Logik, die die Wissenschaft von den Gesetzen des gueltigen Schluesses ist, hat mit der Authoritaet ueberhaupt nichts zu tun. Deswegen wurde Sie in der Lehre des Fehlschlusses erwaehnt. Die Authoritaet kann ein wichtiges Thema in der Dialektik sein, in der es sich um Wahrscheinlichkeit handelt, und in der Rhetorik, die die Kunst des Ueberredens heisst. Dabei hat der Begriff Ethos enge Beziehung mit der Authoritaet. Es handelt sich hier darum, was *vir bonus* bedeutet.

Die Argumentationstheorie bzw. die Neue Rhetorik im 20. Jahrhundert schenkt die Aufmerksamkeit nicht auf die Argument, sondern vielmehr auf die Argumentation. Sie erkennt keine evidente Wahrheit an. Die Argumentation stellt die Frage an unseres Glauben, das mit einer Authoritaet verhuellt ist, und ermoeoglicht uns damit neues Glauben. Das Argumentieren heisst eine praktische Handlung, dem Publikum die Authoritaet zu geben, d.h. eine mit Publikum zusammen Arbeit, unrechte Authoritaet zu vernichten und rechte Authoritaet zu schaffen. Nun handelt es sich darum, wer das allgemeine Publikum ist, dem wir die Authoritaet gern schenken.

**Key Words:** authority, argument(argumentation), logic, rhetoric